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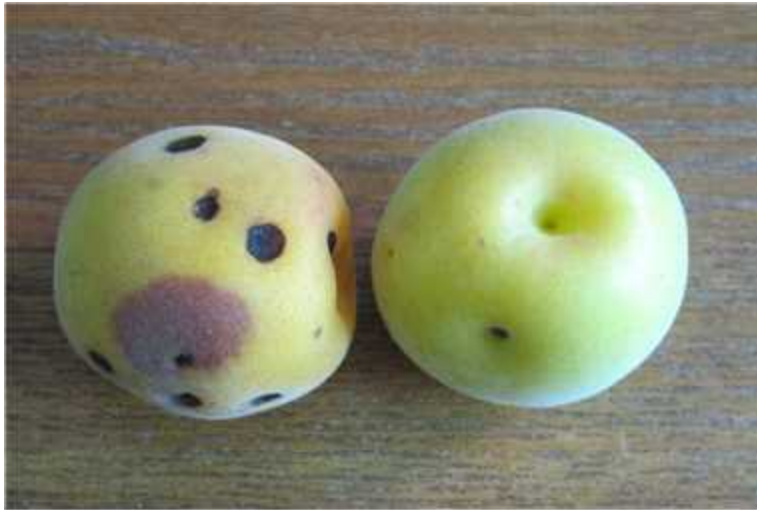
서울샘터 교회 주보

2019년 6월 30일

교회력(다해), 전체 31주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후 셋째 주일** 창조절

☞ 오늘의 말씀-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왕하 2:11).



마당 한구석에 둥구는 매실을 몇 개 주워서 냄새를 맡아보니 몇 달 전 매화의 달콤하고 아릿한 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아직 황매실 향을 이렇게 공짜로 맡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럽다.

예배처소
공동예배
간식 / 친교
교우모임
목사
홈페이지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대방동) 여성플라자
4:00~5:00
5:00~5:20
5:20~6:20
정용섭 (010-8577-1227, 053-856-1227), 박재진, 이춘우
<http://dabia.net/xo/churchs>

이번주는
2층 세미나실

개회예전

예배의 부름 ... 목사

장마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자주 내린다는 사실이 한편으로 불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구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증거이기에 기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니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찬송 14장 (주 우리 하나님) 1,2,4절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배타적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신비로운 방식으로 완성하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의 모든 일상을 멈추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창조주가 아니라면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으며,
영광의 존재가 아니라면 찬양을 바칠 수 없고,
권능을 행사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서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희망을 영혼 가득 품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찬송 새로운 예배찬송 469장(거룩송) ... 다 함께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긍휼과 자비가 한없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의 자비가 아니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절대화하려는 욕망과 고집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당연히 기쁨으로 찬양해야 할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온갖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많았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우리는 세상의 요구와 기준에 길들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에 둔감해졌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세례를 베푸시어, 용서받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민감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침묵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 함께**

***사죄선포 ... 목사**

목사: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막 2:5).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저는 주님의 귀한 이 말씀과 지난 2천 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뢴 모든 죄는 용서받았으니 기뻐하시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에서 ... 다 함께**



***평화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 국악찬송 99장 (진리를 보이소서) ... 다 함께

E. R. Sill

나운영

세마치



*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구조인 삼위일체 개념의 하나가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거룩한 영인 성령은 믿는 자가 진리를 향해서 눈을 뜨게 합니다. 진리는 정말 참된 것, 즉 생명의 실재(reality of life)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생명의 실재라고 믿는 사람들이기에 성령이 바로 예수의 영이라고 믿습니다. 예수의 운명을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말 씬 예 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소리에 익숙해진 우리의 귀를 진리의 영인 성령으로 치료하시어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이들 중에 말씀에서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독서 열왕기하 2: 1-2, 6-14 ... 이유선 집사

성서교독 시편 77: 11-20 (새로운 예배시편 번역) ... 다 함께

주하나님 하신일을 어찌내가 잊으오리 그놀라운 옛일들을 어찌내가 잊으오리
-주님께서 행하신일 하나하나 되뇌이고 위대하신 그일들을 가슴깊이 새기리라
우리주님 가시는길 거룩거룩 하시도다 주님처럼 크신존재 그어디에 또계실까
-우리주님 놀라운일 얼마든지 행하시고 우리주님 크신능력 온누리에 널리있네
하나님의 백성들인 야곱후손 요셉후손 주님팔을 펼치시어 속량하여 주셨다네
-주님이며 저바다와 바닷속의 깊은물도 우리주님 뵈옵고는 두려워서 떨었다네
동실동실 비뿌리고 천둥소리 하늘진동 주님화살 사방으로 비오듯이 날립니다
-주하나님 천둥소리 회리바람 안에있고 빠른번개 번쩍번쩍 온세상을 비추이니
넓은대지 온갖것들 두려워서 떨었다네
바다에도 대해에도 주님의길 있사오나 우리주님 발자취는 그누구도 모른다네
-모세아론 손을빌려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께서는 양떼처럼 인도하여 내셨다네

제2독서 갈라디아서 5: 1, 13-25 ... 이유선 집사

*제3독서 누가복음 9: 51-62 ... 이유선 집사

*응답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의 '알렐루야' ... 다 함께



설교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 ... 박재진 목사

설교후기도 ... 설교자

찬송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 다 함께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림 ... 목사

파 송 예 전

*마침찬송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3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성령강림 후 셋째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으니 각자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을 만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늘 생명을 희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대처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알리는 말씀]

- * 예배 후 반별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 신학과 철학 반, 기도와 교제 반, 청소년 반

- * 기존의 사도신경 받은 교재 종료 후 폴 틸리히의 『그리스도교 사상사』를 7월 셋째 주 (7월21일)부터 공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정용섭 목사의 신간 『마가복음을 읽는다 1, 2』가 홍성사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정 목사가 2006년부터 4년간 매일 원고지 200자 5매 분량으로 마가복음을 풀이한 내용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기독교를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지인들에게 책을 소개해주시시오. 하나님 나라의 간접 선교로서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지난주일 헌금 346,000원 (주일헌금: 286,000원, 통장헌금: 60,000원)
(2019/6/23) 헌금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252-788537 이기령

6,7월 예배준비

	예배일	예배 인도	성경봉독	헌금 / 안내
성령강림후 3주 6/30	2층 세미나1실	박재진	이유선	이기령
성령강림후 4주 7/7	2층 세미나1실	이춘우	김용성	윤혜정
성령강림후 5주 7/14	4층 아트컬리지5실	정용섭	채진진	양혜선
성령강림후 6주 7/21	4층 아트컬리지5실	박재진	윤동희	오미영
성령강림후 7주 7/28	4층 아트컬리지5실	이춘우	고중흥	박수진

6월 23일 설교 “축귀 능력자 예수” 발췌

하나님의 큰일, 예수의 큰일

광인이었다가 정신을 차린 한 사람이 예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옆에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이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즉 위대한 일을 행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만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경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당연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만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자주 나오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한 가지 예로 오늘 본문은 마을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자로 취급받고 배척당했던 사람이 제정신을 차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옳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의 아픈 상처로 고통당하지 않고 정신 차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 중에서 이 사람만 제정신을 차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로 살고 싶어 했지만, 교양이 있다고 자부하던 마을 사람들은 마땅히 환대했어야 할 예수를 거부했다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생명을, 즉 제정신을 차리고 ‘살아있다.’라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어디서 경험할까? 그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은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전하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본문은 초기 기독교의 신앙을 정확하게 여기서 짚었습니다. 예수님의 큰일은 바로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사건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굳이 예수님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잘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은 현실적으로 돈과 오락입니다. 돈과 오락이 현대인들에게 구원의 실체입니다. 그걸 부정하기도 힘듭니다. 그것으로 삶의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돈과 오락이 생명의 실체라는 것은 일종의 뉴에이지 현상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잠재한 신적인 능력을 발현하라는 것이 뉴에이지의 토대입니다. 오늘날 연예 오락과 상품 선전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Love your self!)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파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기에 예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메시지를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믿어도 별로 달라질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신앙 자체로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자신들이나 별로 다를 게 없으니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겠지요. 그들을 우리가 억지로 설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지,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 없이 교회에 기쁨으로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험하기는 했으나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분들과 아직 그런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예수 사건이 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인지를 제가 간략하게나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곧 저의 신앙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나는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입니다. 조각으로나마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체 퍼즐과 연결되어야만 내 존재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퍼즐 조각이 자기만 생각하면서 모양과 색깔을 바꾸면 결국 전체 퍼즐 그림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퍼즐 조각으로서 죽기 전까지 전체 그림에 포함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뿐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말과 행동과 운명으로 나타내셨으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듯이 진정한 의미에서 축귀 능력자이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